

■ 인문학의 고향, 고대 그리스를 가다 김상근

- 호메로스(그리스, B.C. 8세기경)의 [일리아스], [오디세이] - 서구 최초의 서사시

호메로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음보다 삶이 더 값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죽음보다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 이집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받아들인 문명을 ‘생의 찬미’와 ‘인생에 대한 긍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삶에 대한 긍정과 인생에 대한 찬미는 그들의 조각작품에서도 여실히 들어납니다.

그리스에서 <아프로디테, 판 그리고 에로스>같은 걸작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장인의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사랑과 욕망에 대한 성찰이 충분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언제나 탁월함에 대해 논하고 자신과 이웃을 성찰하는 것이라네, 그리고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지 - 소크라테스

- 숙고하는 자세, 즉 내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숙고하는 삶”인 것입니다.

- 플라톤은 [국가]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일을 함이 올바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올바름을 정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의’란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 플라톤이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로 삼았던 나라는 조국 아테네가 아니라 스파르타였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스파르타처럼 군주, 즉 통치자가 늘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철학자 왕”도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 수호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국민들에게는 절제라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 우리는 어떻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실재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는 어떻게 생길까요? ‘갈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할 때, 우리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갈망’은 ‘에로스’를 통해 발현됩니다. 여기서 에로스는 타자에 대한 숭고한 사랑입니다.

-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함께 살기 위해 세상 끝가지라도 가서 문명을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 로마의 초기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위대한 정신은 계승하되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합니다.그리스의 인문 정신은 따라가되 배타성은 경계하겠다는 뜻이지요. 로마인들은 8만 km의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지방도로까지 합하면 총 30만 km였습니다. 이것은 군사

적인 목적이 강했지만 또한 이것은 곧 로마인들이 세계와의 소통, 개방성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 절대 권력의 서사시, 니체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진우

- 니체는 삶에서 가장 큰 결실과 향락을 수확하기 위한 비결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 야코프 부르크하르트는 "권력은 그 자체로 악하다"고 말합니다. 권력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므로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권력으로 운용되고 관리되고 통제된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말합니다.

- 그러나 니체는 권력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며, 나쁜 것이 아니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니체는 모든 것을 뒤집어 생각하는 철학자였습니다.

- '차라투스트라'는 페르시아어로 '조로아스터'를 뜻합니다. 조로아스터는 기원전 2000년, 또는 1000년경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선악을 구별하는 조로아스터를 끌어 들인 다음 신의 죽음, 즉 선악을 구별하는 절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함으로써 선악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선악이 구별되기 이전의 삶,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 합니다.

-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성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대에 신은 일종의 분위기만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고 절대 권력자인 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지하고 관리하던 그 권력의 힘도 사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 여러분은 지금 이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십니까. 이것이 니체의 질문입니다.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한탄한다면 그것은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반면 세계의 가치는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여기고, 너와 내가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은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등장과 함께 여러분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유합니다. 허무주의의 자기극복이라는 것은 따라서 무의미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를 되묻는 것입니다.

- 네가 다시 태어나기를 영원히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 니체

■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 이태수

• 배분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누가 나누어주고, 무엇을 나눠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 나눠주는가 하는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배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파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의 도덕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도덕적인 규칙을 반드시 요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공학적인 뇌만 잘 쓰면 도덕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정의는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소피스트 트라쉬마코스 의 대답

-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란 힘센 놈들의 이득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며, 또 법이란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해 복종하게 만드는 것, 즉 강자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법을 따르는 게 정의라고 한다면 정의는 결국 강자의 이득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대한 글라우콘의 수정 질문후 답변

정의는 서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협약을 깨고도 결코 손해 보지 않을 만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협약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론에서 정의는 곧 게임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가장 공을 들여 공격한 정의 이론이 바로 존 롤스의 정의 이론(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20세기 들어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을 기반으로 존 롤스만큼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정의론]은 20세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샌델은 롤스가 수립한 정의의 이론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 즉 아름다운 국가의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엔 이들을 위한 조력자, 즉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생산자입니다. 또한 이 세 계급은 절대 세습되지 않습니다. 천부적인 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빈부격차는 국가 분열의 주요 원인이므로 최소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내전과 내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 국가에서는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맹목적 생산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욕심껏 생산해내고 소유해서 누군가 덮어놓고 부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실체가 아닌,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정치 철학적인 작품이 아니라 정치와 윤리의 연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이며, 도덕철학과 개인주의가 더 강조된 작품입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지상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의를 추구해나가는 나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 정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